
제105차 ILO 총회 참석 결과 보고

2016. 6.



고용 통계 과

목 차

[요약] 제105차 ILO 총회 참석 결과

I. 제105차 ILO 총회 개요	1
II.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위원회 참석 ..	3
III. ILO 통계부서 담당자 면담	6
1. 고용보조지표	7
2. 종사상지위	8
IV. 향후 계획	10
[참고1]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논의 상세내용	11
[참고2]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위원회 발언문	15
[참고3] ILO 통계담당자 면담 시 발표 자료	17

제 105차 ILO 총회 참가 보고(요약)

(고용통계과, '16.6.24.)

① 회의 참석 개요

- 주관기관 : ILO(국제노동기구)
 - 참가기간 : 2016.5.30(월)~6.3(금) * 전체일정: '16.5.30(월)~6.10(금)
 - 장소 : 스위스 제네바 UN 구주본부 및 ILO
 - 참석자 : 고용통계과 송준행 사무관
 - 참석위원회 :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위원회
- * global supply chains: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구매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체계

② 주요 활동 사항

-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위원회 참석
 - 국제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협약, 권고)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일반 토의 참석
 - * 새로운 기준 필요성에 대한 그룹별 기본 입장: (사용자)불필요, (근로자)필요
 - 한국 정부대표 발언에 통계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 및 반영하여 통계청 사업 홍보 및 위상 제고

한국대표 발언 내용 中 통계 관련 사항

-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계층(여성, 외국인 등)의 고용의 질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협력하고 있음
 -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취업시간,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 산재율 등의 지표를 성별로 공표
 - 또한 기존의 외국인 고용조사를 발전시켜 귀화자를 포함하고, 생활 실태를 포괄하는 신규 통계(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 중

⇒ 위원장은 통계와 관련한 사항을 언급해준 점에 대해 감사 표시

○ ILO 통계부서 담당자 면담

< 면담 개요 >

- 일시: 2016.5.31(화) 14:00~16:30 (2시간 30분간)
- 장소: ILO Department of Statistics 사무실 (WMO건물)
- 발제자: 통계청 고용통계과 송준행사무관
- ILO측 참석자
 - Kieran Walsh(고용보조지표), David Hunter(종사상지위), Valentina Stoevska (고용보조지표의 질적 측면) 등 Senior Statistician 4명 및 실무자 1명
 - 김신호 과장 (ILO 파견관)

① (고용보조지표) 한국 통계 추이를 ILO에 설명하고 다른 국가 최근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문의

⇒ (ILO) 동향 공유에 감사 표시, 한국이 선도적으로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시작하고 매월 지표가 생산되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며, '16년 말에 resolution보다 구체화된 guidance 발간 예정

② (종사상지위) 제20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의 의제로 상정될 예정인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93) 개정의 진행 방향 파악

⇒ (ILO) 현재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며, '18년까지 작업 예정

- ※ 기본방향: 두가지 접근(authority/economic risk) 방법 검토
 - authority ⇒ 'dependent' vs 'independent'
 - economic risk ⇒ 'for pay' vs 'for profit' ☞ 현재기준과 유사
- * '취업(employment)'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자가소비, 자원봉사, 무급 훈련 등을 포함)을 포괄

I 제105차 ILO 총회 개요

- ① 주관기관 : ILO(국제노동기구)
- ② 참가기간 : 2016.5.30(월)~6.3(금) * 전체일정: '16.5.30(월)~6.10(금)
- ③ 장소 : 스위스 제네바 UN 구주본부 및 ILO
- ④ 참석자 : 고용통계과 송준행 사무관
- ⑤ 참석위원회 :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⑥ 주요일정

일자	주요 일정
5.29(일)	인천 출발 → 스위스 제네바 도착
5.30(월) ~6.3(금)	총회 참석 및 개별 면담
	① 개회식 참석
	①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위원회 참석
	② ILO 통계담당자 면담(Mr. Kieren Walsh 등 5명)
6.6(토)~ 7(일)	스위스 제네바 출발 → 인천 도착

< 제 105차 ILO 총회 일정 및 의제 >

□ 일시 및 장소 : '16.5.30(월)~6.10(금), 제네바 UN 구주본부 및 ILO

□ 회의 일정

- ◆ 노사정 그룹별 예비회의 : 5.29(일)
- ◆ 개 회 식 : 5.30(월) 11:00
 - * 노사정 대표단 참석, 총회 의장 선출 및 의제별 위원회 구성
- ◆ 위 원 회 : 5.30(월) ~ 6.8(수)
 - * ① 기준적용위원회(5.30~6.8), ② '평화·안전·복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권고 개정' 위원회(5.30~6.8), ③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위원회(5.30~6.8), ④ '사회정의선언 영향 평가' 위원회(5.30~6.8), ⑤ 재정위원회(6.1)
- ◆ 본 회 의 : 6.1.(수) ~ 6.10.(금)
 - * 사무총장 보고서 『빈곤철폐』 발표 후, 각국 노사정 대표단의 연설
 - 6.6(월) 오전 : 차관님,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연설
 - 6.6(월) 오후: 경총 김영배 부회장 연설
- ◆ 폐 회 식 : 6.10.(금)
 - * 총회 폐회 후, 6.11(토) 오후 제327차 이사회 개최

□ 주요의제

- ◆ 사무총장 보고서: 『빈곤 철폐(End to poverty)』
 -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각국 노사정 논의
- ◆ 국가별 협약·권고 이행상황
 - 기준적용위원회(CAS)에서 회원국의 협약·권고 이행상황(24개국) 및 이주노동자 권리 관련 국가별 상황 논의
- ◆ 『평화·안전·복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권고 개정
 - 국가간 분쟁 뿐 아니라 내전과 자연재해로 발생한 난민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하고 사회에 통합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권고 (Recommendation) 개정 논의
- ◆ 국제 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 국제공급망 내에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위해 회원국이 추진해온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노사정 및 ILO의 역할 논의
- ◆ 사회정의선언 영향 평가
 - ILO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문('08년)」이 각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이행 및 노사의 참여에 미친 영향 평가

II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위원회 참석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재닌 핏 호주 노무관
- 부위원장: 사용자 및 근로자 측 각 1명
- 참석자 : ILO 관계자와 회원국 노사정 대표단 600여 명 참석
 - * 위원장 기준으로 중앙은 정부, 왼쪽은 사용자, 오른쪽은 근로자 착석

2 우리나라 참가자

- 정부: 송준행 통계청 사무관, 김지현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장
- 노사: 박재홍 민간변호사, 배정연 경총 전문위원 등

3 주요 논의 내용

- (개관) 국제공급망(Global Supply Chains) 내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협약, 권고)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청취·토론
- (사용자그룹 입장) 국제공급망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등 개도국 내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새로운 기준설립에 대한 논의가 초국적(cross-border)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러한 투자가 가장 필요한 개도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

- 아울러 이번 ILO논의가 ILO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기존의 국제기준을 저해해서는 안됨
- 국제공급망에 대한 통계와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근로자그룹 입장)** 그동안 국제공급망을 규제하는 국제노동기준은 대부분 강제성 없이 기업차원에서 실시되어 효과가 미미, ILO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강제성 있는 국제기준 마련 필요
 - 국제공급망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노동권 침해문제에 있어서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 선진국 및 선도기업(lead firm)의 책임성 강화, 공급망 내 각 단계에서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동권의 보장 필요
- **(정부 입장)** 새로운 기준설립과 관련하여
 - 아프리카 그룹 일부국가는 찬성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그룹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편이며, 우선 국제공급망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조사를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
- **(공통)** 노사정은 모두 국제공급망의 내 양질의 일자리 관련 ILO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하며 OECD나 WTO 등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되 논의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인식

※ 상세내용: 붙임1

4] 통계청 관련 활동 내용

○ 한국대표 발언에 통계 관련 내용 포함

- 논의주제 2번*과 관련하여, 한국대표의 발언내용에 통계청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하여 반영

* 경제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가 조화되도록 ILO 및 참여국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정책, 전략, 사업들을 추진해왔는가?

한국대표 발언 내용 中 통계 관련 사항

-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계층(여성, 외국인 등)의 고용의 질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협력하고 있음
 -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취업시간,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 산재율 등의 지표를 성별로 공표
 - 또한 기존의 외국인 고용조사를 발전시켜 귀화자를 포함하고, 생활 실태를 포괄하는 신규 통계(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 중
- ※ 발언문 전체: 붙임2

⇒ 위원장 코멘트: 한국이 통계와 관련한 사항을 언급해준점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

※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 발언에서 통계와 관련한 사항을 미포함

○ ILO 통계 담당자에게 금번 의제의 통계 관련 사항 별도 문의

- (질문) 금번 의제 206번 문단에서 언급한 “통계 향상(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정기적인 자료 수집 및 제공)”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있는지?
- (답변) 현 단계에서는 정책적 논의를 우선 진행하고, 통계와 관련한 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음(Valentina Stoevska)

○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의 정부 대표와 네트워크 형성

- 한국에서 ILO총회에 통계청이 동참한 점이 고무적이라는 의견

III

ILO 통계부서 담당자 면담 결과

1 면담 추진 경위

- 고용보조지표 작성 결과 공유 및 최근 동향 파악 필요
 - 한국은 ILO의 고용보조지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최초의 국가로써, 그간의 작성 결과 및 조사 경험을 ILO 측에 설명함으로써 국제 고용통계에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
 - ILO 기준 설정(2013.10) 이후 최근 다른 국가의 고용보조지표 작성 노력 등 새로운 동향 파악 필요
 - 종사상지위 개정 논의 동향 파악
 - 5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노동통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ICLS) 제20차 회의(2018년)에서 국제 종사상지위분류(ICSE-93) 개정이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
 - 사전에 이와 관련한 진행 방향을 파악하여 향후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 이를 위하여 토의자료를 작성하여 김신호과장(ILO 파견관)에게 전달하고, 관계자 파악 및 면담 일정 조율을 추진하였음

2 일시·장소 및 참석자

- 일시: 2016.5.31(화) 14:00~16:30 (총 2시간 30분간 진행)
- 장소: ILO Department of Statistics 사무실 (WMO건물)
- 발제자: 통계청 고용통계과 송준행사무관
 -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천경기사무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서유리사무관 배석
- ILO 참석자
 - Kieran Walsh(고용보조지표), David Hunter(종사상지위), Valentina Stoevska(고용보조지표의 질적 측면) 등 Senior Statistician 4명 및 실무자 1명
 - 김신호 과장 (ILO 파견관)

③ 안건 주요내용 및 논의결과 (발표자료: 붙임3)

① 고용보조지표

- (KOSTAT) '15.1.~'16.4. 한국의 고용보조지표 추이, EU 국가와의 비교자료, 한국에서 고용보조지표에 대한 반응 등을 설명

⇒ (ILO) 동향 공유에 감사 표시, 한국이 선도적으로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시작하고 매월 지표가 생산되는 점이 매우 고무적임

- (KOSTAT) ILO 기준 설정(2013.10.) 이후 최근 다른 국가의 고용보조지표 작성 노력 등 새로운 동향 질의

⇒ (ILO) 현재까지는 ILO 기준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외에 브루나이가 있음

* 브루나이: 2015년부터 공표, 미얀마: 2016.7월부터 예정

- 미공표하면서 내부참고 및 ILO에 제공하는 국가들도 있음

- 일부 국가*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개도국은 자가소비 활동 비중이 커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임

* 총 10개 국가: 아시아 2(필리핀, 베트남), 아프리카 4(나미비아, 카메룬 등), 남미 2(에콰도르 등), 동유럽 2

- 2016년 말에 resolution 보다 구체화된 guidance가 나올 예정

- (KOSTAT) EUROSTAT이 고용보조지표의 각 구성요소를 발표하지만, ILO기준 산출식을 적용한 비율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 문의

⇒ (ILO) EU는 여러 국가로 구성되다보니, 새로운 지표를 EU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황 차이로 인하여 시간이 걸림(향후 수년 소요 예상)

② 종사상 지위

- (KOSTAT) 제20차 ICLS 회의('18년)에서 다루어질 국제종사상지위 분류(ICSE-93) 개정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 현재 기준(ICSE-93)

- paid employment: ①employees
- self-employment: ②employers ③own-account workers, ④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⑤contributing family workers
- ⑥ workers not classifiable by status

⇒ (ILO) 통계전문가, 근로자·사용자 단체, 국제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작업 예정

▪ 기본방향

- 두가지 접근(authority/economic risk) 방법 검토

* authority ⇒ 'dependent' vs 'independent'

* economic risk ⇒ 'for pay' vs 'for profit' ⇨ 현재기준과 유사

- '취업(employment)'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work)'(자가 소비, 자원봉사, 무급 훈련 등을 포함)을 포괄

▪ 취업(employment)에 대한 종사상 지위 분류

- 두가지 접근(authority/economic risk)에 따라 법인기업의 소유경영자, 의존적인 계약자 등의 분류방향이 달라짐

구분	authority	economic risk
법인기업의 소유경영자	independent	for pay
의존적인 계약자	dependent	for profit

- Employee 세분화 추진(standard/non-standard), Standard는 지속성*, 형식성**, 풀타임, 정규시간***을 갖춘 경우를 의미

* ongoing: 기간이 정해졌는지 여부

** formality: 연차유급휴가, 유급병가,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등 고려(국가적 상황에 따라)

*** regular hours: 일정기간에 최소 몇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받기로 약속된 고용관계

▪ **견습생, 훈련생, 인턴: 무급인 경우 별도 카테고리 분류 예정**

* 보수를 받는 경우는 취업자 중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별도 분류 불필요

▪ **법인기업의 소유-경영자: 별도 카테고리 분류 예정**

- 다만, 이들의 규모가 매우 적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을 시 가구조사에서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 것이 적절

* 사업체조사 또는 행정자료 등 근거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

▪ **의존적인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 두 그룹*으로 분류 필요**

* ①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지만 자영업자와 유사한 계약관계 보유

② 자신소유 사업을 운영하지만 일에 대한 통제 권한이 완전하지 않음

- 이들을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로부터 분리하려면 추가 연구 필요

▪ **가내 근로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의존적인 계약자와 유사, 작업장소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고려 필요**

▪ **가사 근로자: 여러 종사상 지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어 별도로 구분되진 않을 것. 제도적 통계적 관행 등 추가 검토 필요**

▪ **기여가족종사자: 의존적인 계약자 및 가내 근로자 등을 돕는 경우 등을 다루기 위한 논의 필요**

▪ **향후 계획**

- 차기 워킹그룹회의는 '16.11월말~12월 초 예정

- 2017년에는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초안 수정 작업 지속

- 2018년에 최종 초안 마련 및 ICLS('18.10월) 상정 논의 예정

IV

향후 계획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 국제공급망 관련 새로운 기준 마련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통계 관련 사항 발생 시 대응 필요

고용보조지표

- '16년 말에 고용보조지표 관련 guidance 발간 시 내용 검토 및 우리나라 작성 기준 변경 필요 여부 등 검토

종사상지위 개정

- 종사상지위 개정은 차기 국제노동통계인총회('18.10)의 핵심 의제로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우리나라 의견을 사전에 전달

붙임 1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논의 상세 내용

□ 총론

- 이번 회의는 국제공급망의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 발전 (inclusive development)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병행하기 위한 ILO 및 각국 정부와 사회주체들의 노력, 국제 거버넌스, 국제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각국 노사정과 ILO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음
- 재닌 피트 호주 노무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음. 재닌 피트 위원장은 국제공급망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으며, 다양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발언. 이후 사용자측, 근로자측 부위원장 위촉

□ 사용자그룹 입장

- 사용자 대표로 선출된 포터(Potter)는 국제공급망이 개도국의 고용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강조함
 - 국제공급망은 현지기업 보다 평균 31% 정도 임금을 더 지급하고, 공식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자국기업들에 비해 현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 노조측에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섬유봉제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열악하다고 제기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교육수준이 낮은 비숙련 여성근로자들로써 사실상 자국내 미약한 취업환경을 고려할 때 임금이 낮은 편이 아님
 - 국제공급망은 이들 근로자들이 공식 경제부문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아울러 개도국에 기술과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 노조 측은 거버넌스 격차(gap)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경을 가로지르는(cross-border)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기존의 기준을 이행하고, 각 국가별 노동입법 및 법 집행임
 - 모든 기업들은 이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
 - UNGP는 기업이 ILO핵심협약 및 1998년 도입된 작업장의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공급망도 UNGP 적용을 받고 있음
 - 국제공급망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는 기존 기준의 효과성을 약화시키고 기준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됨
- ILO는 국제공급망과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국제 공급망과 관련된 기존의 ILO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함
 - 국제공급망과 관련된 산업별, 지역별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함
 - 또한 G7, G20, OECD 및 다른 UN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급망 관련된 정보 및 지식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 근로자그룹 입장

- 노조측 대표로 선출된 카탈린 파스키어(Catelene Passchier) 네덜란드 FNV 위원장은 공급망 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다고 발언

- 개도국 내 경제발전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국가간 아웃소싱, 투자 이전 위협 등에 따른 공급망 내 임금 하방 압력이 심해지고 있음
- 여성, 이주노동자, 아동노동, 장시간 노동, 공급망 각 단계에서의 노조 및 교섭 부재, 사회적 대화의 부재, 원하청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수출가공지역(EPZ) 등의 경제특구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해 노동법 적용 완화, 세금면제 혜택 등, 개별 국가의 정부는 법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으며, 공급망에 대한 자발적인 기준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효과는 미미함
 - 따라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국제노동기준 마련이 시급함
- 사회적 주체간의 자발적인 노력인 국제기본협약(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이 확산되어 하며 그 사례로 방글라데시 협약(Bangladesh Accord)을 소개
 - 그러나 민간 거버넌스인 IFA가 공적 거버넌스를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

※ Bangladesh Accord

- 국제산별노조인 UNI(국제사무직노조)와 인더스트리얼(국제통합제조업 산별노련)이 4개 NGO단체, 8개 방글라데시 노조와 함께 브랜드사 및 공급업체와 맺은 화재 및 건물안전에 관한 협약(Bangladesh 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 200여개의 브랜드사, 20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600여개의 공급업체가 참여. 협약 기간은 5년간 유효하며 강제력이 있음.
- 공공부문의 역량강화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 및 민간 등 다양한 거버넌스 간의 갭을 줄여나가야 함
 - UN 다국적기업 선언, UN 글로벌콤팩트, OECD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다양한 다국적 이니

서티브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가 이루어져야 함

- 거버넌스 갭 해소를 위한 사례로 브라질의 강제노동퇴치 (Combating forced labor), ILO-IFC Better Work Program,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등을 언급
- ILO Better Work 프로그램의 경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음

□ 정부그룹 입장

- EU,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기준 마련에 있어 유보적인 입장이며, 먼저 국제공급망에 대한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EU는 각국 정부들이 먼저 공급망 관련 기존의 기준에 대한 입법 등 이행노력을 해야 하며, 거버넌스 갭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다국적 이니셔티브를 활용해야 함에 동의하였음
- 공급망 관련, 이사회는 2017년 다국적기업 선언을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선진국 정부들은 전문가 회의 개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전문가 회의가 새로운 기준 마련으로 가는 디딤돌(stepping stone)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함.
 - 일본은 산업별로 문제점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산업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제안
 - 국제공급망에 대한 업종별 자료 및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선진국 정부들은 인식을 공유하였음

붙임 2

국제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위원회 한국 정부 발언문

* 토의주제 2번(ILO 사무국, 노사정 그리고 여타 이해관계자들은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발전이 동반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 전략, 실행계획 혹은 프로그램을 이행하였는가?) 관련

- Thank you, Chair, for giving me the floor.
- As transition econom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taken up more than 50% of the global FDI, mainly due to their relatively low production cost, a significant number of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have become engaged in the Global Supply Chains as suppliers to MNEs. However, workers in the production countries are going through a lot of difficulties, due to long working hours,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ow awareness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Korean companies in the global supply chain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lead firms or suppliers, by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and education opportunities, so that they can comply with the rules protecting workers' rights and create decent jobs. For countries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Korean investment companies, labor attaches are dispatched. They provide guidance on the local labor laws and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monitoring the labor relations of the Korean companies in the local area. For other countr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dispatches experts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Labor Foundation (KLF), a specialized agency in overseas labor relations.
- In addition, by holding labor relations seminars at home and abroad, the Korean government is dedicated to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to Korean companies such as local labor laws and labor practices, as well a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such as the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UN Global Compact, OECD Guidelines on MNEs, and so on.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KLF, has been dedicated to promoting capacity of social partners, by having co-hosted trade union workshops with the ILO Turin Center since 2010. Coincidentally, the theme of the 2014 workshop was 'Promoting decent work in MNEs and their supply chains'.

- Also, to support groups that can be more vulnerable than others in Global Supply Chains such as women and migrant workers, the relevant ministries such as Statistics Korea and MOEL are cooperating with each other to produce and analyze statistics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 It has disseminated indicators on social insurance subscription rate, working hours, employment types (regular / non-regular), industrial accident rate, etc, on a sex-disaggregated basis.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developing a new statistics on immigrants regarding their status of staying in Korea and employment. This new survey is a progress of the existing 'Foreign labour force survey and includes naturalized persons and cover overall their living conditions.
-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workers' rights by MNE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sustainabl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wareness on corporate citizenship and enh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compliance. **However, it cannot be done by only one player of the global supply chains. Effort made by suppliers would reap substantial results when they are met with the strong willingness of the lead firms in a proactive way.**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committed to guaranteeing working conditions to secure decent jobs for all.
- Thank you.

Discussion Topics

meeting abstract

- ◆ (date and time) 2pm on May 31, 2016
- ◆ (participants) Kieran Walsh, David Hunter, Valentina Stoevska Kim Sinho (Department of Statistics/ILO)
Song Junhaeng (Employment Statistics Division/Statistics Korea)
- ◆ (purpose)
 - sharing the recent trend of LUI(labour underutilization indicators) of korea
 - ask ILO's advice on the latest news and other questions related to labour underutilization indicators

1. sharing the recent trend of LUI of Korea

- LU2~LU4 trends show roughly the same move as that of LU1(unemployment rate), having the peak-point period in January to March which is the recruiting season.

< Trend of LUI in Korea, January 2015 ~ April 2016 >



- The unemployment rate of Korea is much lower than that of EU countries(LU1 KOREA/EU ratio = 0.38). Then, for LU2~4, the gap narrows.(LU4 KOREA/EU ratio = 0.64)
- Upon measuring the ratio of LU4 against LU1, the ratio of EU is 1.9, and that of Korea is 3.1 which is higher than EU's.

<LU1~LU4, comparison with EU and Korea, 2015>

	EU	KOREA	KOREA/EU ratio
LU1	9.4%	3.6%	0.38
LU2	13.5%	5.5%	0.41
LU3	13.5%	9.5%	0.71
LU4	17.4%	11.2%	0.64
LU4/LU1 ratio	1.9	3.1	

- ⇒ Some of Korean people feels the unemployment rate of 3.6% does not reflect actual labor market conditions. LU2~4 play important roles in explaining reasons for the gap between the unemployment rate and labour market sentiment in Korea.

2. Asking ILO's advice; Questions about LUI

- Q1) Is there any other country compiling labour underutilization indicators(LU1~LU4)?
- In EUROSTAT web-site, I found three elements of LUI (①underemployed part-time workers, ②persons seeking jobs but not immediately available(i.e. unavailable job-seekers), ③persons available to work but not seeking(i.e. 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
 - But I couldn't find LU2~4 rates. I wonder whether EU countries compile and disseminate LU2~4 rates.
 - What kinds of effort are being made in other regions(i.e. Asia, America, etc) to compile LUI in accordance with the ILO resolution?

Q2) In the case of Korea, the majority of the 「potential labour force」 is comprised of 「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 For those who did not carry out activities to seek employment, their intention to work is not clear and many of them hesitate to answer questions about whether they wanted to be employed or not. So the scale of 「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 shows influences of psychological, seasonal factor, etc.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henomenon? Do you see any similarities or differences in European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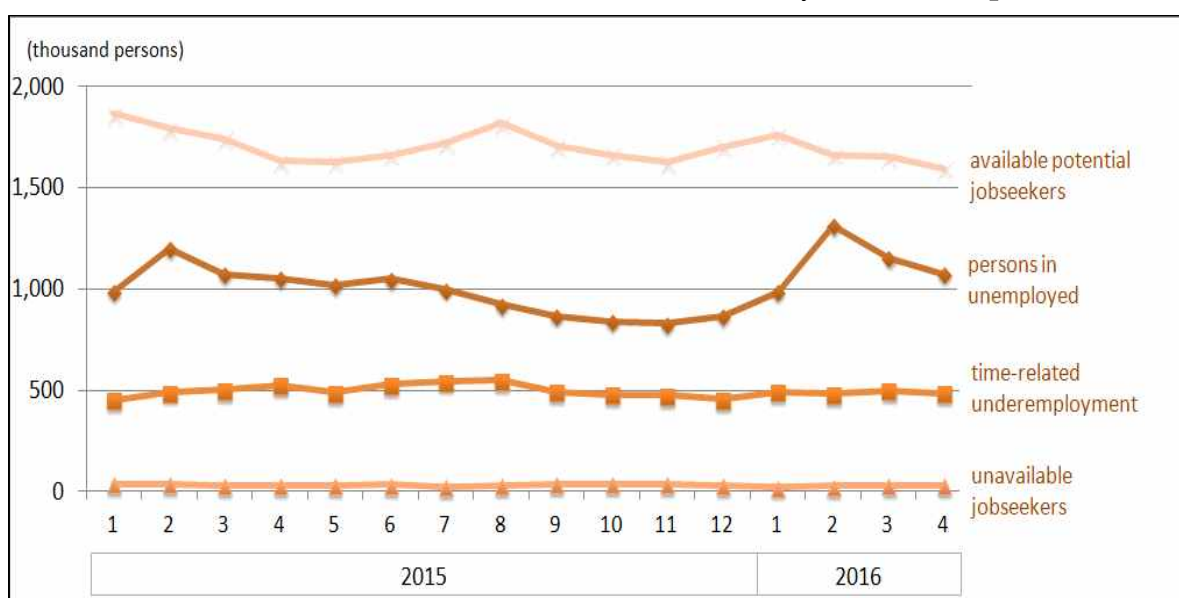
* did not carry out activities to "seek for employments", but wanted to be employed and were "currently available"

<Elements of LUI, comparison with EU and Korea, 2015>

(unit: thousand persons)

	EU	KOREA
Unemployment	22,872	976
Underemployed part-time workers	10,005	500
Persons seeking work but not immediately available	2,184	33
Persons available to work but not seeking	9,255	1,715
Active population	243,319	26,913
Extended labour force	254,758	28,660

< Trend of elements of LUI in Korea, January 2015 ~ April 2016 >



<further questions>

Q1) In paragraph 206 of the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agenda, or Report IV of the 105th session of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ILC), "Improving statistics" is suggested as a way forward. More specifically, improving systems to collect and disseminate regular data on the decent work dimensions of global supply chains is presented as a method of "Improving statistics".

I wonder if there is a more detailed plan or basic direction for that. (for example, how is it different from the general discussion on decent work, if there is any specific statistics in support of the plan, etc.)

Q2) In my understanding, the ongoing review 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of 1993(ICSE-93) has focused on certain groups of employee including owner-managers, domestic workers, dependent contractors and zero-hours contracts. Will any or all of these groups be subject to be the main agenda of the 20th session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ICLS) in 2018?